



그린나래

화성시 일반구 설치한다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특례시로 승격된 화성시에 1년만에 일반구가 설치된다.

2019년부터 일반구 설치를 준비해 온 화성시는 2021년 시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2024년 4월 특례시 추진단 신설 및 일반구 설치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024년 하반기에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화성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2026년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총 4개의 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화성시가 일반구를 설치하는 이유는 많다. 첫 번째로 화성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구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 2023년에 인구 100만명을 돌파했다. 두 번째로 서울시에 1.4배, 수원시에 7배에 달하는 면적에 각 권역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평균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어 주요 생활권역에서 30분 이내에 방문이 가능한 중간 행정 계층 설치에 관한 시민 편의요구가 증가했다. 세 번째로 일반행정 복지분야, 기업정책 투자분야, 인허가 토지 등 다양하고 급격한 행정수요가 증대하여 시청 한 개로 해결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생겼다. 마지막으로 타 특례시 공무원 정원대비 현장행정기관 인력 배치율이 낮다. 타 특례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서도 화성시 351명으로 1위인데, 근처 용인시가 333명으로 2위, 수원시는 331명으로 3위이다.

화성시의 4개 구의 명칭은 1권역 만세구, 2권역 효행구, 3권역 병점구, 4권역 동탄구이다. 각 권역별 특징을 살펴 보면, 1권역은 기아오토랜드와 현대기아연구소,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등이 포함된 산업중심지이다. 또한 복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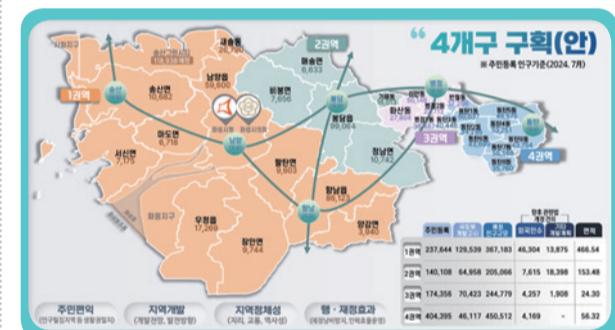
시를 개발 중이고 서해선 열차가 운행 중이다. 신안산선 열차도 개통 예정으로 풍부한 서해안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1권역의 임시청사는 화성종합경기타운이며, 남양읍, 향남읍, 우정읍, 송산면, 팔탄면, 장안면, 서신면, 마도면,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시화지구를 포함하고 있다. ‘풍요로운 자연과 산업 자원이 어우러진 융복합 혁신도시’를 내세우고 있다.

2권역은 ‘모두가 누리는 교육중심의 자연친화적 정주도시’를 비전으로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을 포함하고 있다. 수원여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 흥의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비봉지구와 어천지구가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이다. KTX어천역과 수인분당선, 경부고속선이 지나며 철도교통을 개발 중이다. 임시청사는 봉담읍청사이다.

3권역은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병점 1동, 2동이 포함되어 있는 병점구로, 임시청사는 병점 동부출장소이다. ‘역사와 첨단기술이 만나는 사람 중심의 성장 도시’ 비전 아래 맞춤형 행정이 추진된다. 융건릉과 병점역, 삼성전자 가 위치하여 세계문화유산과 삼성전자를 배후로 한 진안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4권역은 동탄 1동부터 9동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동탄구로, 경기남부 철도망의 중심과 수원, 화성, 용인을 잇는 반도체 벨트가 형성된 지역이다. ‘도시와 자연이 공존

하며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 비전에 맞춘 맞춤형 행정이 추진된다. 센트럴파크와 메타폴리스, 동탄역, 동탄 테크노밸리, 동탄 호수공원이 있는 4권역의 임시청사는 동탄출장소이다.



출처: 화성시 4개구 구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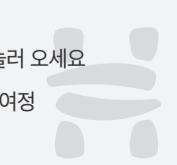
2025년 1월 전국 5번째 특례시가 된 화성시는 내년 2월부터 4개 구청 체제로 전환되어 그에 걸맞은 106만 화성시민에게 더욱 특별한 도시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일반구 설치는 새로운 화성시대의 출발점으로,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따뜻하고 다채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개편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호준 기자



- [1면 / 이호준] 화성시 일반구 설치한다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2면-1 / 신지유]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스마트폰이란
[2면-2 / 김민정] 배움의 사다리 누구에게 열려 있나
[3면-1 / 안정미]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K-컬처
[3면-2 / 장유준] 한류의 국제적 인기 vs 서구 중심의 시상식
[4면 / 정이수] 왜 그 청년들은 쓰레기더미 속에서 살았나 쓰레기집에 대하여
[5면-1 / 강선우] 한국의 ‘하키코모리’ 현상 얼마나 심각한가
[5면-2 / 김지효] 절리저기압 첫눈의 형태를 바꾸다
[6면 / 육서진] 지구의 ‘숨’을 저장하는 또 하나의 허파, 바다

- [7면-1 / 허예진] 뇌 없이도 길을 찾는 신비한 생물 점균류
[7면-2 / 최정원] 누군가의 하품이 나에게도 전염될까?
[8면-1 / 황인준] 줄어드는 담배, 늘어나는 전자담배… 청소년을 위협하다
[8면-2 / 김우슬] 공부는 환경과 전략, 동기부여 구조의 결과물
[9면-1 / 이서운] 자유학기제, 과연 자유일까
[9면-2 / 강경서] 식지 않는 청소년들의 촉구인기
[10면-1 / 홍예서] 불가피하지만 불필요한 임시 경쟁
[10면-2 / 김연우] 화성시청소년놀터 솜사탕 병점2점으로 놀러 오세요
[11면 / 강설화] 화성시 청소년기자단 그린나래 그 3년의 여정
[12면 / 홍보] 26년 자치기구 홍보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스마트폰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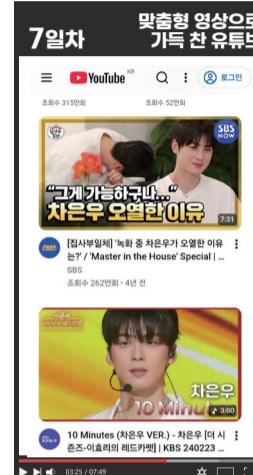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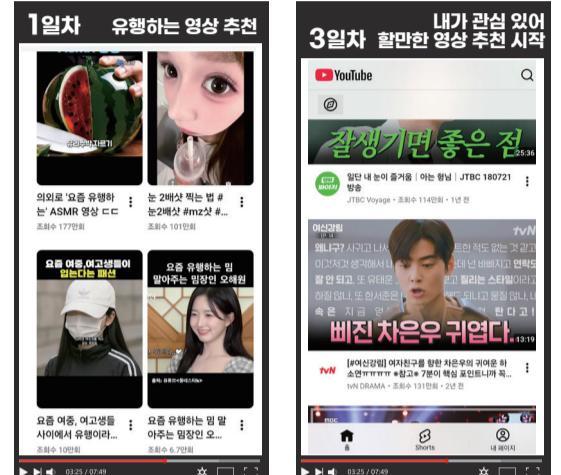


유익한 점이 너무 많기에 우리 사회 모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렇지만 즐겨 사용하는 만큼 단점도 분명히 있는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우린 모두 스마트폰을 '당연하게' 사용한다. 그 결과, 스마트폰을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며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는 한창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있다.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청소년은 21만명 이상(조사참여 청소년 약 120만명, 17.3%)으로 심각 수준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서도, 지난해 10~19세의 42.6%, 3~9세 25.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이 다른 활동보다 과도하게 중요해지고,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신체·심리·사회적 문제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늘어나는 이유가 뚜렷하게 있는 것일까? 이에 기자는 이른바 솟풀 콘텐츠와 미디어 생태계를 주목하며, 최근 우리 사회가 이목을 갖는 유튜브 솟츠를 직접 체험해 보았다.

기자의 유튜브 솟츠 체험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단점(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점 등)이 청소년의 일상에 해가 되는 것 같다. 또, 오랜 시간 동안 가까이에서 밝은 스마트폰을 지켜보는 것도 건강에 해롭고 눈도 많이 피로한 것 같다. 정리해보면, 청소년에게 주어진 스마트폰은 양날의 검이지만 청소년들도 스마트폰의 장단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까.

이에 대해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학교폭력소년법 담

하루에 최소 10분씩 유튜브 솟츠 탐색을 반복해 보았다. 1일차, 유튜브 앱을 처음 다운로드해 접속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요즘 유행하는 영상들이 추천으로 나타났다.

3일차, 유튜브 알고리즘이 한번 시청한 영상에 관련 있는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기자는 10분이라는 시청 시간을 초과하여 자극적인 영상들을 시청하게 되었다. 케이팝 가수의 영상을 시청하면 그 가수의 노래, 무대, 지인, 비슷한 감성을 가진 다른 가수 등을 보여주며 빠져나갈 수 없게 했다.

7일차, 한번 시청한 영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완벽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다. 맞춤형 영상으로 가득 찬 화면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늘어나는 이유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임교수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을 모르는 게 아니다. 알고 있지만 잘 안돼 스스로 사용 시간을 줄이는 데 실패하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사용 시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목적을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끌어주면 자신의 스마트폰 활동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용하게 돼 시간과 콘텐츠의 유해 여부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신지유 기자

다고 판단을 하고, 또한 선행학습을 받지 못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스스로 입시 전략을 위해서 자퇴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EBS의 [교육격차 3부: 인(in) 서울이 뭐길래]에서는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대치동에 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치동이나 목동과 같은, 이른바 교육특구라고 하는 곳에 살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업성적과 격차가 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실제로 주요 명문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도권 출신인 현 상황에서는 그곳에 속해 있지 못한 아이들은 끊임없이 불안해진다.

EBS 다큐멘터리 [K - 교육격차, 5부 스포일러]에서는 교실 속에서 선행학습을 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나온다. 어떤 학생은 “나는 학원에서 이미 배워서 수업이 지루하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학생은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 따라가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이런 목소리를 통해 같은 교실 안에서도 출발선이 다르다는 현실을 확인하게 해준다. 여기서 학교는 배움의 장이지만 동시에 교육격차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전문가가 생각하는 심각한 교육격차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EBS 다큐멘터리 [대치동 그리고 그 밖의 아이들]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표현으로,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배경이 아이들의 학습 기회와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김형수 PD (EBS 다큐멘터리 'K 교육격차' 연출)는 “한국 교육이 가르치는 것은 ‘격차’ 그 자체가 아닐까요?”라고 말하며, 교육의 출발선부터 이미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배움의 사다리, 누구에게 열려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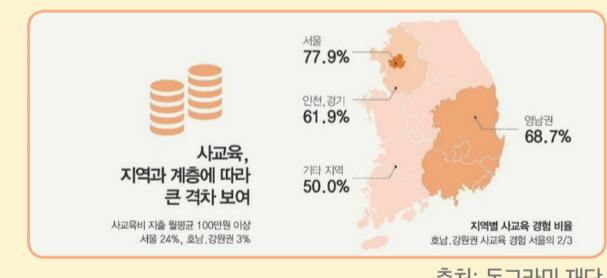
코로나19 펜데믹은 단순한 건강과 경제 문제만 남긴 것이 아니다. 교육 현장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전환은 학생들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가정마다 인터넷 환경과 디지털 기기 보유 수준이 달랐고, 부모의 돌봄 여부나 학습 지원 능력도 크게 차이가 났다. 그 결과, 일부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무리 없이 따라갔지만, 다른 학생은 수업을 놓치거나 학습 공백을 경험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기존에 존재 하던 교육격차를 더욱 벌려놓았다.

교육격차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교육격차는 단순한 성적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서로 시작하는 출발선이 다르다. 어떤 친구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어떤 친구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공부의 차이가 커지면 나중에 직업이나 소득에도 영향을 준다. 결국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교육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심각한 빈부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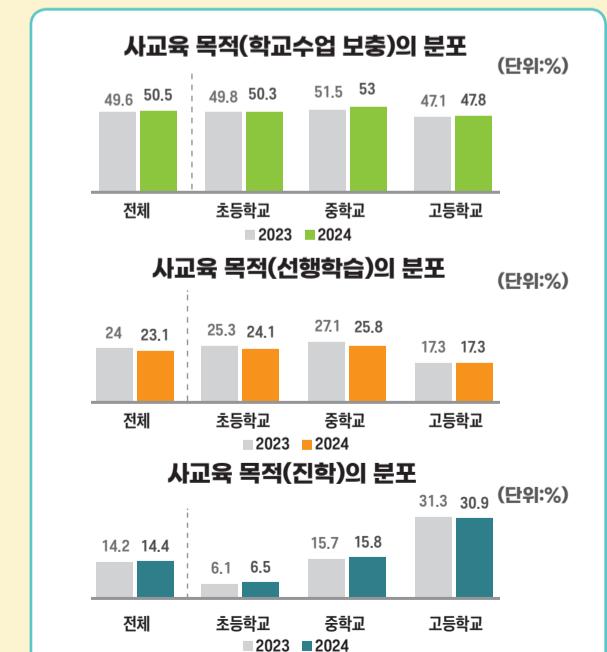
실제 학생들이 겪는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실제 인터뷰를 담은 EBS의 [교육격차 2부: 나의 자퇴기]에서는 교육 환경차이 때문에 결국 자퇴를 한 다양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준우’라는 학생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 학생은 목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정시 위주로 준비를 했다. 하지만 내신에서 한 번만 실수해도 명문대 진학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학교 수업이 오히려 입시에 방해가 된

“공부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질과 미래 가능성을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모든 아이가 최소한의 기회와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민정 기자



출처: 동그라미 재단



출처: 통계청·교육부(2025). 2024 사교육비 조사결과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K-컬처



K-컬처가 세계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K-팝을 비롯한 K-드라마, K-뷰티, 웹툰 등 한국의 생활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인 K-컬처가 이제는 세계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며 '문화 강국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K컬처의 인기는 어느 정도일까.

K-팝은 전세계적으로 확고한 인기를 얻으며 여러 차례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특히 올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OST '골든'(Golden)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정상을 탈환했다. 이 외에도 케데헌 OST 8곡이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하며 기세를 이어갔는데, '유어 아이돌'(Your Idol)과 '소다 팝'(Soda Pop)이 각각 17위와 23위를 차지했고, '하우 잇츠 딘'(How It's Done)과 '왓 잇 사운즈 라이크'(What It Sounds Like)는 각각 28위와 31위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APT.)가 지난 9월 미국에서 열린 '2025 엠티브이(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에 선정되기도 했다. 주요 부문에 해당하는 '올해의 노래'를 K-팝 가수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K-팝뿐만 아니라 K-무비, K-드라마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2021년 방영되어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한국의 유명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1은 2022년 프라임타임 예미상 14개 부문 후보에 올라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2024년 말 방영된 시즌2는 2025년 제82회 골든 글로브상에서 최우수 TV 드라마 작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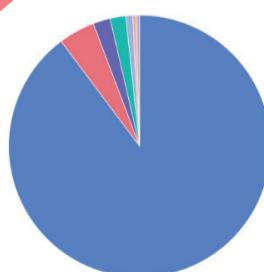
출처: 넷플릭스

후보에 올랐다. 지난 6월 27일 공개된 시즌3은 초반에 전 세계 넷플릭스 9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웠다. 특히 오징어게임 시즌1은 누적 22억 520만 시청 시간과 2억 6,52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전체 흥행 1위를 유지하고 있다.

K-푸드 역시 한국 문화 확산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K-푸드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K-푸드 연간 수출액은 2016년 60억 58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엔 106억 6300만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올해 9월 누계 기준으로는 1년 전보다 8.9% 증가한 8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라면과 김의 인기가 높은데, 그 중에서도 라면은 영화 케데현 개봉을 계기로 지난해보다 24.5% 증가한 1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APEC을 계기로 황남빵, 호두과자, 치킨 등이 인기를 끌면서 K-푸드의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다양한 비서구권 문화들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문화 교류의 구조는 여전히 서구 중심적인 대조적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케이팝(K-pop)이나,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비서구권 문화들이 거둔 큰 문화적 성공에도 문화 교류의 구조는 여전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문화 교류 체제의 문제를 넘어 '문명의 충돌'이라는 더 큰 현상이 이면에 숨어있다.

문화 교류의 체제가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은 다양한 예술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적 시상식들에서 잘 드러난다. 심사위원 다양성은 물론, 비서구권 문화에 대한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종합: 100%
● 백인: 90%
● 흑인: 4%
● 히스패닉: 3%
● 아시안: 2%
● 다민족: 0.75%
● 종동: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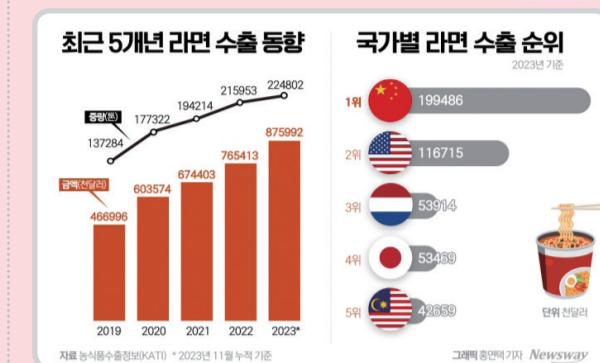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영화계의 권위 있는 시상식인 아카데미 시상식(The Academy Awards)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 이미지는 1929년부터 2025년까지 아카데미 시상식의 본상 수상자들과 그들의 국적을 정리한 통계이다. 수상자 90%는 백인이며, 이 수치는 다른 인종들의 수상 비율을 합쳐도 9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영화와 같은 문화적 매체에서 다양한 국적의 배우들이 인기를 끌고 예술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시상식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백인 배우들에 비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류의 국제적 인기 VS 서구 중심의 시상식

다시 떠오른 한류 전성시대 속에 살펴보는 문화 교류 현상

비서구권 문화가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문화의 가치와 권위에 대한 인정 및 평가를 상징하는 시상식에 이르면 힘이 약해지는 모습은 늘 반복되고 있다. 이는 서구 중심적인 문화 교류의 모습이 단순한 현상이 아닌, 서구 중심적인 문화 교류 체제의 산물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화 교류의 체제는 왜 이러한 형태를 띠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제도적 불균형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경제학자 새뮤얼 헌팅턴이 쓴 <문명의 충돌>에 따르면, '문명'이란 언어, 역사, 종교 등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문명들이 충돌하며 나타나는 문화적, 경제적 현상이 문화 교류 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서구 중심적인 문화 교류 체제는 서구권 문화들과 비서구권 문화들의 가치관, 언어, 역사 등의 차이가 문화권들의 대립을 불러와 일어나는 현상이다. 문화 교류 체제의 형태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닌, '문명'의 충돌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새뮤얼 헌팅턴은 세계를 중화, 일본, 힌두교, 불교, 이슬람, 정교, 서구,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9개 문명으로 나누었고, 이 분류를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화에 포함된다.



자료: 농식품수출정보(KATI) * 2023년 11월 누적 기준

국가별 라면 수출 순위

2023년 기준



출처: 농식품수출정보(KATI)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백악관 대변인이 올린 한국 화장품 구매 인증 사진으로 증명된 K-뷰티 열풍까지 K-컬처가 앞으로도 전세계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는 한류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안정미 기자

<전세계가 응원한 K-컬처>

"공항에 BTS가 도착했을 때, 마치 비틀스가 온 것 같았다"

- 미국의 유명 진행자 엘лен 드제너러스

'오징어 게임'이 화제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

'오징어 게임' 흥행은 한국 영화 '기생충'에서 드러났던 것과 매우 같은 현상

- CNN

"특별히 라면을 먹어보려고 방문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영상) 봤거든요"

- 영국인 관광객 클리

"서울에 갈 때는 기내수하물만 갖고 갓지만,

돌아올 때는 짐을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했다. 그 이유는 화장품 때문이었다."

- 영국판 보그온라인에 실린 '서울에서 막 돌아왔어요'

보그가 인정하는 K뷰티 쇼핑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기사



그렇다면 서구권 문화들이 문화 교류의 체제에서 비서구권 문화들의 우위를 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역사 속에서 서구 문명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전쟁과 발전, 냉전을 거치며 서서히 세계의 패권을 주도해 왔다. 새뮤얼 헌팅턴은 냉전이 끝나고 이데올로기의 싸움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보편적 가치로 주장하며 전 세계에 퍼뜨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문화 교류 체제도 이러한 역사의 산물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서구의 문명이 세계적 패권을 주도하고, 문명들이 이를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문화 교류의 체제도 서구를 중심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국제 무대에서의 비서구권 문화들의 부진한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오랜 역사와 문명의 충돌이라는 거대한 현상의 결과물인 문화 교류 체제로 인한 문화적 현상인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문화들이 한데 섞여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채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문화 교류 체제 속에서 다양한 문화들의 고유한 가치가 존중되고 인정받으려면 공정한 평가의 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장유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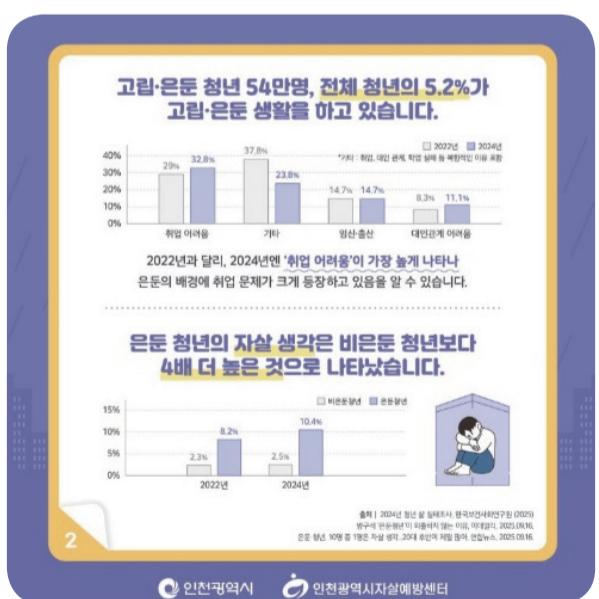
왜 그 청년들은 쓰레기더미 속에서 살았나: ‘쓰레기집’에 대하여



최근 여러 지역에서 청년이 거주하는 ‘쓰레기집’이 발전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 안을 가득 메운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과, 풍겨오는 악취에서 이것이 단순 위생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이 현상을 몇몇 ‘특이한 사례’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균열이 어떻게 개인의 일상에까지 스며드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대체 무엇이 청년들을 쓰레기집으로 내몰고 있는가?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게으름, 생활 습관의 문제로만 축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쓰레기로 가득 찬 공간은 흔히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그 안에는 청년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 만큼 일상이 무너지고 고립된 현실이 담겨 있다. 즉, 쓰레기집은 청년이 “삶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등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2024년 집계 기준 청년 취업 실패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단절된 생활을 하는 ‘고립·은둔 청년’이 약 54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청년 인구의 5%에 해당한다. 고립·은둔 청년의 자살 생각은 비 은둔 청년보다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쓰레기집에 대한 정부 기관의 공식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업체는 보통 월 100~150건의 의뢰가 들어온다고 답했다. 이 중 80%가 넘는 사람들이 2030 청년들이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쓰레기집·고독사 현장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수청소업에서의 일화들을 업로드하는 유튜버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Q 기자: 특수 청소 작업은 높은 체력적·정신적 소모를 요구하는 업무인데, 어떻게 이 직업을 갖게 되었나요?

A 근성마톡(유튜버): 처음엔 금전적인 목적을 생각하며 시작했습니다. 단순 입주 청소만으로는 수입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특수 청소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현장을 경험한 이후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만,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들 이 이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들이 더 망가지기 전에 그들을 돋고 싶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지금은 그 진심을 담아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A 근성마톡(유튜버): 당시 현장을 설명하자면, 제가 처음으로 가봤던 쓰레기집 현장이 학교 선생님께서 의뢰해 주신 집입니다. 그때 제대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상상하고 있던 쓰레기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은둔형 외톨이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상상해 왔었는데 막상 제가 마주한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걸 알고서 정말 말로만 들던 것보다 훨씬 비참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Q 기자: 지금까지 겪어오셨던 다양한 현장들이 있으실 텐데 정말 그중에서도 정말 이건 앞으로도 평생 잊을 수 없겠다 싶은 그런 케이스가 혹시 있었을까요?

A 근성마톡(유튜버):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현장은 첫 고독사 청소 때의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고독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한창 꿈을 펼쳐나갈 나이에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전 당시 감정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Q 기자: 쓰레기집에 있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라던가 이런 게 있나요?

A 근성마톡(유튜버): 이제 청소 현장만 들어가 봐도 거주자의 심리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쓰레기집에 사는 사람들의 사정은 각기 다르지만, 특히 우울증으로 쓰레기집을 방치하게 된 경우는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린 느낌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단순 게으름으로 인해 쌓인 쓰레기집과는 현장의 분위기가 확연히다르며, 업계 종사들은 이를 직감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집 문제는 흔히 노년층의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현상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20대가 압도적입니다. 특히 배달 음식과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무기력으로 인해 청소를 미루고, 내부적으로 발생한 쓰레기가 장기간 누적되는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Q 기자: 영상이 끝날 때마다 “이제 이 집은 아무 일도 없던 겁니다.”라는 멘트로 끝나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A 근성마톡(유튜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만, 그런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집에 살았었던 분이라던가, 혹은 영상 속의 주인공분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졌으니까, 아픈 과거도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은 하나의 응원 코멘트입니다.

Q 기자: 현직 종사자로서 사회에 이런 사안에 있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하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으실까요?

A 근성마톡(유튜버): 사실 인터뷰를 진행하기 바로 전까지도 청소 의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청소 현장도 복지 사각지대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나아져서 뭔가 복지로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열악한 상태의 집이었습니다. 저희가 지역 사회복지 팀하고 연결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미성년 자녀가 한 달 60~70만 원을 아르바이트로 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도저히 두고만 볼 수 없어 사비로 무료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국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 노년층의 저장강박증 사례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 쓰레기집 문제는 사실상 제도권 밖에 방치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이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통계보다 더 무겁게 현실을 때렸다. 문제는 이미 표면화된 수준을 넘어, ‘고립된 청년층의 붕괴’라는 사회적 징후로 자리 잡고 있었다. 진정 이 문제를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단계에 진입한 사회인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노인 쓰레기집의 주요 원인이 인지 기능 저하나 질병이라면, 청년의 경우 다른 증위로 접근해야 한다. 많은 청년 쓰레기집 사례는 심한 우울증, 범죄 피해 경험(스토킹·데이트폭력·주거침입 등), 불안 장애, 사회적 고립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은둔·고립 청년들은 외부 접촉을 피하고 방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쓰레기가 쌓여도 치울 힘이나 동기를 잃는다. 작은 무력감이 일상 전체를 뒤흔드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청년의 쓰레기집은 결국 정신적 상처와 사회로부터의 도피가 물리적 공간에 드러난 결과다.

그렇기에 해법은 그저 쓰레기를 치우는 데 있지 않다. 쓰레기 제거는 가장 마지막 단계일 뿐이다. 앞선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듯, 쓰레기집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의 심리적·정서적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전망 실질화, 은둔 청년을 찾아가는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 생활기능을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핵심이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정리 서비스’가 아니라 ‘삶을 다시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연결’이다.

청년 쓰레기집은 한국 사회가 청년을 안전망 밖으로 밀어낸 구조적 결과다. 주거난, 장기 취업난, 불안정 노동, 구조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까지 이 모든 요소가 청년을 점차 고립으로 몰아넣는다. ‘청년이 왜 이렇게 살았나’를 묻는 대신, 우리는 ‘청년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나’를 질문해야 한다. 쓰레기집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응답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정이수 기자

한국의 '하키코모리' 현상 얼마나 심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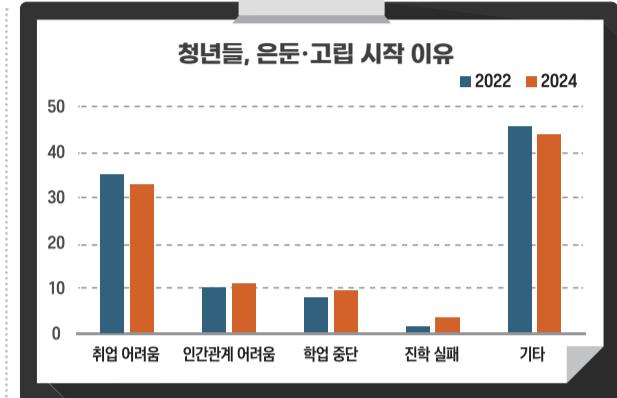
하키코모리(ひきこもり)는 “일이나 학업에 참여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자택에 머무르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이다. 이는 단순히 집에 머무는 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주로 ‘은둔형 외톨이’로 불린다. 과거에는 일본의 독특한 청년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요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사회적 문제와 개인적 경험이 섞여 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입시 경쟁과 치열한 취업시장은 많은 이들에게 끊임없는 압박과 좌절감을 안겨준다. 성공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압박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패배 의식을 심어주며, 이는 대인 기피나 사회적 회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학교나 직장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경험 또한 이들을 사회 밖으로 내보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기 시작하며, 이것이 장기적인 은둔으로 굳어지게 된다. 또한,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서적 학대 등 가정 환경의 문제도 은둔의 중요한 배경으로 지목된다. 결국 이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선택을하게 된다.

은둔형 외톨이는 단순히 개인과 한 가정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 악영향을 미친다. 은둔은 개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고립은 우울증, 불안 장애, 사회 공포증과 같은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자기 비하를 심화시키며, 극

단적이면 자해나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둔은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준다. 부모는 자녀 부양의 짐을 떠안게 되며, 이는 부모 세대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 간의 소통 단절은 관계를 파탄시키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마저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동반 고립’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은둔 청년들은 잠재적 노동력의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생산성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들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장기화할수록 의료비 지출, 복지 서비스 등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경우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수많은 익명의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정유정 사건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다. 2023년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또래 여성 살해 및 시신 유기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피의자 정유정(당시 23세)은 평범한 대학생을 가장해 접근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유정의 삶은 충격적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특별한 직업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하며, 5년 가까이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온 삶이 잠재적으로 품고 있을지 모를 위험성을 공론화했다. 정유정의 사례는 고립된 삶이 어떻게 개인의 정신건강을 파괴하고, 사회적



출처: 2022년 및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

유대감을 상실하게 하며, 결국 극단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고이다.

2015년 은둔형외톨이를 학교밖·사회밖 청년이라 명명하고 20대 은둔형외톨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김혜원 호서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는 지난 5월 여성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정책은 사실상 일자리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금전 지원은 은둔형외톨이 청년들에게 가닿지 못한다”며 “이들에게는 다시 도전할 마음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우선 자존감을 되찾아야 한다. 비슷한 경험을 한 또래와의 감정 공유나 함께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반갑지만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등 오해가 많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강선우 기자

12월 4일 퇴근길부터 많은 눈이 쏟아지며 2025년의 공식 첫눈이 기록되었다. 서울의 공식 첫눈은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관측자가 직접 목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는 첫눈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었다. 지난 가을에는 단풍이 채 지기도 전 내린 갑작스러운 눈밭에 시민들은 “벌써 겨울이 온 것 같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첫눈이 폭설로 기록된 이후, 올해도 첫눈부터 함박눈이 평평 내려 첫눈의 낭만이 대설주의보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상청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기상 변덕이 아니라 ‘절리저기압’의 이동 변화와 지구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흐름의 불안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절리저기압은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으로, 한반도에 형성될 때 기온에 따라 비나 눈을 만든다. 올해는 북쪽의 한기가 예상보다 일찍 남하하면서 절리저기압이 평소 보다 빠르게 형성된 것이 첫눈 시기 앞당김의 주요 원인이다.

즉, 단순히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눈이 온 것이 아니라, 찬 공기의 이동 경로가 바뀌면서 첫눈을 유발하는 조건이 일찍 갖추어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 지구 온도 상승 = 눈 감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북극 온도가 빠르게 오르고, 이로 인해 찬 공기를 잡아두는 제트기류가 약

절리저기압, 첫눈의 형태를 바꾸다



해진다. 약해진 제트기류는 찬 공기 덩어리가 갑작스럽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현상을 만들어, 오히려 한파와 조기 눈을 더 자주 발생시킨다.

올해 첫눈은 평년(11월 20일)에 비해 14일 늦었다. 지난해(11월 26일)와 비교하면 8일 늦었다. 이전까지는 첫눈의 시기에 주목했다면, 이제는 첫눈의 적설량, 범위 등 형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단순한 낭만을 넘어, ‘새로운 기후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앞으로의 겨울철 날씨는 더욱 불규칙해져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변화는 한파와 따뜻한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는 ‘기온 롤러코스터’ 현상, 비와 눈이 뒤섞여 내리는 이상 강수 패턴의 증가, 교통, 농작물, 에너지 공급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확대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어 올해 겨울도 기상청 예보, 날씨 수요 등을 포함한 도시 인프라 관리, 시민 안전과 같은 안전 안내문자와 함께 시작되는 첫눈이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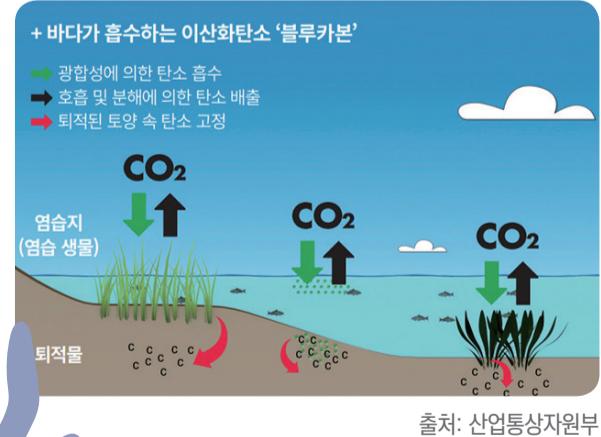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지효 기자



지구의 '숨'을 저장하는 또 하나의 허파, '바다'

여름철 외출 필수품인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초의 백화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가. 해수욕장이나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은 햇빛이 강한 낮 시간대에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크림을 바른다. 선크림 속 옥시벤존은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여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데, 3,500개가 넘는 자외선 차단제품에 들어갈 정도로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문제는 옥시벤존이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 산호초를 화학물질에 노출시킨다는 점이다. 올림픽경기장 규격의 수영장 6.5개를 채운 물에 단 한 방울의 옥시벤존이 있어도 산호를 백화현상(산호가 하얗게 변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게 할 만큼 옥시벤존의 위협은 치명적인데, 단지 산호초의 죽음을 넘어 바다가 블루카본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

블루카본(Blue Carbon)이란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주체로 숲을 떠올리지만, 사실 바다는 숲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한다. IPCC(UN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해양은 지구에서 인위적으로 증가한 열의 9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20~30%를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대기 중 탄소가 해수면에서 심해로 이동하여 바다는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블루카본 생태계로는 201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습지 부문 보충 지침에 포함되어 해양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된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가 있다. 한국에는 강원 동해안과 남해안에 다양하게 분포된 해초밭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블루카본 국가 연구개발을 수행했다. 당시 국제 기준에 포함된 염습지 등의 면적, 탄소 저장 및 흡수 능력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갯벌의 놀라운 힘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갯벌은 1년에 최대 49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는 승용차 약 20만대 배출분에 해당한다.

들어갈 경우 옥시벤존이 들어가지 않은 선크림 사용하는 것은 일상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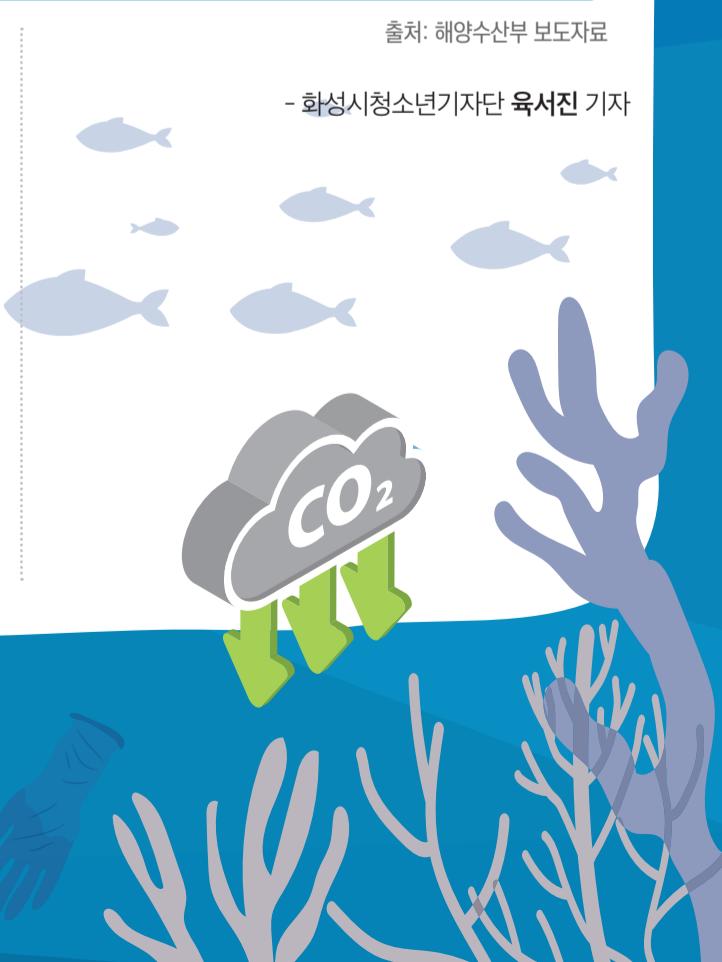
지구의 허파가 숲이라면, 바다는 지구의 '숨'을 저장하는 또 하나의 허파이다. 우리가 여름철에 바다에 남기는 작은 흔적 하나가 산호초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바다를 이해하고 지키려는 행동 하나가 지구를 살릴 수도 있다. 바다를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기후 위기를 막는 파란 숲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바다는 지금 병들고 있다. 지난 50년간 맹그로브의 35%, 해초밭의 30%가 사라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안 개발과 해양 쓰레기, 양식장 오염 등으로 블루카본 생태계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육서진 기자

이를 해결한 방안으로는, 우선 훼손된 지역에 토착 식생을 다시 심고, 해수 흐름을 회복해 자연적으로 탄소 저장 능력을 높이는 방식이 있다. 또한 무분별한 연안 개발을 억제하고, 오염 유입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참여와 친환경 어업 전환을 통해 주민이 직접 복원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바다에



뇌 없이도 길을 찾는 신비한 생물, 점균류



점균류 미로 실험

숲길을 걷다 축축한 낙엽을 살짝 들춰보면 노란색 또는 주황빛의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보일 때가 있다. 얼핏 보기엔 곰팡이나 생물의 흔적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천천히 움직여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독특한 생물의 이름은 점균류다. 커다란 생명체도 아니고 특별한 감각 기관도 없고 심지어 뇌도 없는 생물이지만, 놀랍게도 스스로 주변을 탐색하고 가장 효율적인 길을 선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 점균류 모습

그렇다면 뇌가 없는 점균류는 어떻게 길을 찾을까? 핵심은 점균류의 '퍼지고, 살리고, 지우는' 방식에 있다. 점균류는 하나의 거대한 세포처럼 생겼고, 먹이를 찾기 위해 몸 전체를 얇은 막처럼 펼친다. 이때 몸속에서는 영양분이 흐르는 통로가 만들어지는데, 영양 공급이 잘 되는 방향으로 흐름이 강해지고 그 외의 방향은 흐름이 약해져 점차 사라진다. 즉, 점균류는 몸을 넓게 늘렸다가 잘

되는 길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는 방식으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마치 시험지를 받을 때 여러 문제에 연필로 가볍게 체크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답일 가능성성이 높은 것만 진하게 표시하는 행동과 비슷하다. 점균류는 처음에는 여러 경로를 동시에 시도하지만, 먹이 냄새가 더 강하거나 환경이 더 좋은 방향을 감지하면 그쪽으로 흐름을 강화해 가며 결국 가장 효율적인 길로 몸을 모은다. 이 과정을 통해 점균류는 뇌 없이도 복잡해 보이는 길 찾기를 쉽게 해낼 수 있다.

이 원리는 실험을 통해 더욱 확실해졌다. 가장 유명한 실험은 점균류 미로 실험이다. 과학자들은 점균류를 미로의 입구에 두고 출구에 먹이인 귀리를 두었다. 처음 점균류는 미로 전체로 펼쳐지며 모든 길을 탐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먹이가 있는 경로의 통로가 점점 굽어지고, 막다른 길이나 의미 없는 경로는 서서히 없어진다. 결국 남은 것은 미로를 통과하는 최단 거리였다. 이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계산한 결과와 거의 동일했다. 뇌가 없는 생물임에도 '최단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몸으로 구현한 셈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점균류가 학습한다는 점이다. 점균류는 보통 싫어하는 물질이 있는 길을 피하지만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이 길을 지나도 괜찮다'는 것을 경험으로 억혀 더 빠르게 이동한다. 뇌가 전혀 없는데도 경험에 따라 행동이 변하는 이런 현상은 생명 과학계에서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균류의 적응

능력이 미래의 인공지능 연구에도 새로운 힌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점균류의 이러한 능력은 실제 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대표적인 예는 교통망과 네트워크 설계이다. 일본에서는 점균류가 만들어낸 경로가 실제 도쿄 지하철 노선과 거의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점균류가 만든 길은 불필요한 연결은 줄이고 흐름이 많이 필요한 경로만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효율적인 교통 설계에 큰 참고가 된다.

또한 점균류의 길 찾기 원리는 인터넷 데이터 이동 경로, 배달 차량 최적 동선, 도시 쓰레기 수거 루트, 긴급 상황 대피 경로 계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점균류처럼 필요 없는 길은 자연스럽게 제거하고, 많이 쓰이는 길을 강화하는 방식은 여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데 매우 적합하다.

점균류는 겉보기에는 단순하고 느리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계산 능력과 적응력을 가진 생물이다. 뇌 없이도 길을 찾고, 더 나은 방법을 학습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숲속이나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이 작은 생명이 사실은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자연이 만든 알고리즘'이라는 사실은 매우 신기하다. 앞으로 점균류 연구가 더 진행되면 우리의 기술과 도시 환경, 나아가 일상생활까지 변화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올지도 모른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허예진 기자



누군가의 하품이 나에게도 전염될까?

누구나 한 번쯤은 주변사람이 하품을 하자 나도 모르게 하품을 따라한 적이 있을 것이다. 분명 졸리지도 않았는데 왜 하품이 전염된 걸까?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하품 전염'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하품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하품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전염 가능성성이 높았다. 친구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하품이 더 쉽게 번지는 이유는 '감정이입'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졸음이 아니라, 뇌가 타인의 상태를 "공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하품 전염에는 뇌 속의 거울신경세포가 깊게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거울신경세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신경세포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품하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실제로 하품을 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즉, 우리의 뇌는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를 복사하고, 그 결과 실제로 하품이 따라 나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단순히 하품뿐 아니라 웃음이나 하품 후의 안도감까지도 어느 정도 전염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2015년에 방영된 EBS 프로그램 <뉴스G>는 하품 전염이 생리적 반응을 넘어 사회적 유대와 공감 능력을 드러내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프로그램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잘 읽고 공감할수록 하품이 잘 전염된다"고 설명하며, 사람뿐 아니라 개나 침팬지 등 일부 동물도 주인의 하품을 따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감정이입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뇌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반려견은 낯선 사람보다 주인의 하품에 더 자주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하품 전염은 공감 및 사회적 유대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2011년 영국의 윌킨슨 박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지능이 발달한 동물들 사이에서 하품이 전염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의견과 별개로 하품 전염의 기원을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살펴보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하품이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 리듬을 맞추거나 휴식과 경계 상태를 공유하기 위한 신호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 구성원이 하품을 하면 무리 전체가

동시에 긴장을 풀거나 주의를 전환하게 되면서, 생존에 유리한 효과를 얻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하품 전염 현상을 뇌과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상대가 하품을 할 때, 사고-공감-행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감정 및 사회적 유대를 담당하는 변연계가 함께 작동하여 자발적으로 하품을 따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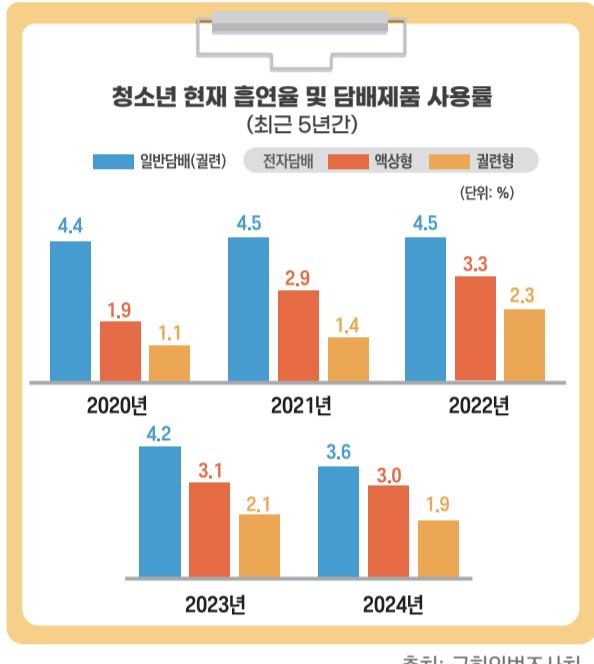
결국 하품은 단순히 졸리다는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서로 공감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이고 신경학적인 반응이며, 우리 뇌가 타인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식 중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 친구가 하품할 때 자신도 모르게 따라 하품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공감하는 뇌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른다. 피곤함의 징후로만 여겼던 하품이 사실은 인간관계의 따뜻한 연결고리라면,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기분 좋은 전염이 아닐까.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최정원 기자

줄어드는 담배, 늘어나는 전자담배… 청소년을 위협하다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청소년의 일반담배(궐련) 흡연율은 2024년 3.6%로 2020년(4.4%)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청소년 사용률은 2024년 각각 3.0%와 1.9%로, 2020년 대비 증가한 상황이다.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손을 대는 주된 이유로는, 호기심을 비롯하여 또래의 권유, 스트레스 해소 욕구, 미디어 영향, 가정환경 등이 꼽힌다. 친구가 권하는 담배 한 개비가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곧 벗어나기 힘든 상태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SNS나 영상 콘텐츠에서 흡연이 ‘멋있다’거나 ‘어른스러워 보인다’는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증가로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환경은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2024년 9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상반기 실태조사 당시 11곳에 불과했던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2024년 9월 초 기준 44곳으로 증가했다. 약 6개월 만에 4배나 늘어난 셈이다. 지난달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241개 전자담배 자판기를 점검한 결과 성인인증 장치를 달지 않은 기기는 17개,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기기는 10개였다. 전체의 11.2% 가량이 성인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담배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달콤한 향과 선택 가능한 다양한 맛 때문에 호기심이 쉽게 유발되고, 구매 과정이 간편해 빠르게 중독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2019~2023년 담배 제품 중복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32.0%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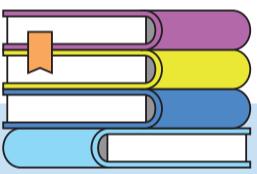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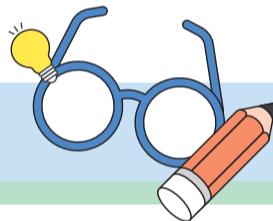
흡연을 시작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의 60.3%는 일반 담배를 주로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신체와 정신 건강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니코틴은 성장기 뇌 발달을 방해해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정신적 불안감을 증가시키며, 호흡기 질환, 피부 노화, 치아 변색 등 다양한 신체적 부작용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한번 형성된 니코틴 의존은 금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김희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청소년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일반 담배보다 훨씬 더 쉽게 흡연을 시작하고,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청소년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흡연 문제는 개인의 선택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작은 호기심이 평생의 후회로 남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지켜야 할 때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황인준 기자

공부는 환경과 전략, 동기부여 구조의 결과물



“매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많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심리학 연구들은 한 가지 사실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라, ‘공부 기술’을 습득한 학생이라는 것이다. 공부의 성패는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환경과 전략, 그리고 동기부여의 구조 속에서 결정된다.

1. 집중력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만든다.

하버드대 신경과학 연구(1966년~현재까지 지속 중)에 따르면, 산만함을 줄이는 행위 자체가 뇌의 집중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실험 결과, 공부 전 주변 환경을 정돈한 그룹은 그럴지 않은 그룹보다 문제 해결 속도가 47% 더 빠르고 기억 지속 시간이 39% 더 길었다. 이는 단순히 산만한 자극이 병해가 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뇌는 외부 자극을 받을 때마다 집중 회로를 다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평균 23초가 소요된다. 즉, 스마트폰 알림 한 번, 음악 재생 한 번이 집중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집중력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설계력’의 문제다.

효율적인 환경 설계 방법은 단순하다. 책상 위에는 필요한 교재 한 권만 남기고, 공부 시간은 25분 단위로 설정한 뒤(포모도로 기법), 5분 동안 휴식한다. 휴식 시간에는 스마트폰 대신 눈을 감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단순한 루틴이 뇌의 집중 리듬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학습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

2. 공부는 전략의 연속이다.

스탠퍼드대의 인지학습 실험(2000년 후반~현재까지 지속 중)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했다.

“노력의 양보다 학습 전략의 질이 성취를 결정한다” 연구에 따르면, 학습 전략을 체계적으로 바꾼 학생들은 동일한 시간 투자에도 평균 37% 더 높은 성적 향상을 보였다.

핵심은 세 가지 전략이다. 첫째, ‘간격 반복(Spaced Repetition)’이다. 복습을 일정 간격으로 분산시키면 기억 유지율이 2~3배 더 높아진다. 둘째, ‘오답 정리’다. 단순히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것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스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셋째, ‘5분 요약법’이다. 학습 후 5분 동안 핵심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면, 뇌의 이해 구조가 강화되고 장기기억으로 전환된다. 결국 공부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정확한 반복’이며,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3. 진짜 동기부여는 목표가 아니라 정체성에서 나온다.

단기 목표인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동기는 쉽게 사라진다. 반면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와 같은 자기 정체성 기반의 목표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코넬대의 동기심리학(2002년~현재 까지 지속 중) 연구에 따르면, 정체성 기반 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실패 후 재도전 확률이 62% 더 높았다. 학생은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내며 장기적인 몰입을 유지할 수 있다. 공부의 이유가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될 때, 그 노력은 더 깊고 오래 간다.

결론적으로 공부는 머리 싸움이 아니라 설계의 과학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환경을 통제하고, 전략을 세우며, 자신만의 이유를 명확히 정의한 사람들이다. 공부는 ‘의지력 테스트’가 아니라, 집중력·전략·정체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만들어내는 과학적 시스템이다. 지금 이 순간, 단 25분만 주변을 정리하고 몰입해보라. 그 순간부터 당신의 공부는 ‘노력의 싸움’이 아닌 ‘설계된 성장’으로 바뀐다. 공부는 재능의 경쟁이 아니라, 집중력의 기술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우솔 기자

<간단요약>공부의 전략	
주제	핵심 내용
집중력	집중력은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에서 온다. 주변을 정리하고, 25분 집중 후 5분 휴식(포모도로 기법)이 효과적.
공부 전략	① 복습을 간격으로 진행하면 기억력 향상 ② 오답 정리: 틀린 이유를 설명하며 복습 ③ 5분 요약법: 핵심 내용 요약으로 이해 강화
동기부여	목표는 “정체성”에서 나와야 지속적인 동기 부여가 가능 “좋은 대학” 같은 단기 목표는 쉽게 사라지고, “도움이 되는 전문가”처럼 자기 정체성 기반의 목표가 지속적 에너지 제공
결론	공부는 “머리 싸움”이 아니라 환경 설계·전략·정체성의 합수 집중력·전략·정체성이 잘 설정하면 성적이 향상된다.



많은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6학기) 중 1학기를 내신 점수가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토론 및 실습형 학생 참여 교육과 진로 체험 교육 시수를 넓혀 학생들이 이 자신들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전국에서 진행된 자유학기제는 적지 않은 시행 기간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일까.

먼저, 자유학기제는 여러 장점이 있다. 학생들은 토론, 실습형 교육을 통해서 학업과 경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유학기제가 실행되는 학기에는 시험 점수가 환산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글로 평가되어, 학교생활이 더 즐거워질 수 있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그린나래'가 지난 11월 화성시 소속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21%), 여러 친구들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20%)고 답변했다.

자유학기제, 과연 자유일까?

중학교 생활을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다.

19(18%)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10(10%)

여러 친구들과 체험을 하며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21(20%)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22(21%)

진로나 관심사를 물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13(13%)

자신의 흥미에 따라 수업을 들을 수 있다.

18(17%)

또한, 1학년 1학기에 진행하는 학교의 비중이 많은 만큼, 자유학기제로 처음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다. 자유학기제에는 대학교처럼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102시간 동안 가질 수 있어,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자신에게 적합한 공부를 하며 진로 선택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체험을 통해 요리, 사격 등 여러 귀중한 경험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학업 측면에서도, 시험 점수가 내신에 포함되지 않아 선행학습을 하거나 부족한 과목들을 보충하면서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지만, 다양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존재한다. 만약 학습 환경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장점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어떨까? 몇몇 학교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예산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지원해 주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를 찾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실제로 앞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자유학기제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진로 수업을 듣게 된 경우 수업 만족도가 많이 낮아진다(32%)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자유학기제 동안 활동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학업을 소홀히 대하는 행동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업 공백이 생기게 되고 학력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학생과, 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학생 각각의 역량을 교사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평가 기준이 모호해지고 교사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된다는 비판도 제시되고 있다.

자유학기제와 비슷한 제도로 '자유학년제'가 있었다. 자유학기제가 진로 탐색 활동과 토론, 실습 활동들을 한 학기만 진행하는 반면, 자유학년제는 1학년 1, 2학기 동안 진행한다. 2023년까지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유학년제를 진행했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기초학력 저하 및 사교육 조장 등의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2025년 폐지되었다. 자유학기제는 폐지된 자유학년제의 운영 기간과 방식을 재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제도이다. '자유' 학기이기 때문이다. 장점을 키울지 단점을 키울지는 자유학기제를 대하는 자세와 방식에 달려있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교 등 교육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제도를 탐색하고 운영해야 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서윤 기자

식지 않는 청소년들의 축구 인기



학교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축구를 즐기는 청소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 한쪽에서 공을 차는 학생들, 방과 후 풋살장으로 모이는 학생들, 주말마다 친구들과 팀을 나눠 경기하는 모습은 더 이상 특별한 장면이 아니다. 지역별로 규모와 환경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학교와 생활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축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축구가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축구가 꾸준한 인기를 얻는 이유 중 하나는 접근성이 있다. 축구는 복잡한 장비나 특별한 기술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 공 하나만 있으면 여러 명이 함께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가볍게 경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가장 쉽게 시작하는 운동이 되고 있다.

또한 축구는 여러 명이 함께하는 팀 스포츠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경기 중에는 팀원 간의 의사소통, 역할 분담,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공을 주고받는 과정이나 수비·공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친구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다. 실제로 '축구를 통해 친구들과 더 친해진 느낌이 들었

다' '같이 뛰면서 생기는 팀워크가 재밌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축구 활동을 찾게 만든다.

온라인을 통해 축구에 접근하는 기회가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는 경기 하이라이트, 기술 설명, 거리 풋볼 영상 등 축구 관련 콘텐츠가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이러한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축구 기술이나 전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짧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실제로 이를 따라 하며 연습하는 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온라인 환경이 축구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있다.

학교 밖에서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 것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뒷받침하고 있다. 화성시 지역 공원이나 소규모 스포츠 시설 곳곳에서 풋살장이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이 방과 후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인조잔디로 정비된 운동장이나 예약제로 운영되는 실내 풋살장은 날씨나 장소의 제약을 줄여주어 청소년들이 친한 친구들과 팀을 구성해 자유롭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면서 학생들이 보다 편하게 축구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축구 활동은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경기 중에는 뛰기, 멈추기, 방향 전환, 킥과 패스 같은 동작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신체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 규칙적으로 축구를 즐기는 학생들



은 경기 속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쌓인 에너지를 풀어내고, 활동 자체의 재미를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경기 후에 느껴지는 개운함이나 친구들과 함께 뛰며 생기는 활력은 청소년들이 축구를 계속 찾는 이유로 충분하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축구 활동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체육 시간 외에도 점심시간 운동 프로그램이나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축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고 있다. 몇몇 학교에서는 안전한 경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동장 정비나 공용 장비 관리 등을 강화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축구가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뚜렷하다.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며, 활동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온라인 콘텐츠나 지역 시설의 확장 같은 요소들이 더해지며 축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많은 청소년의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축구를 통해 형성된 건강한 스포츠 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기대된다. 더불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원, 우호적인 환경적 변화는 더 많은 청소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강경서 기자

불가피하지만, 불필요한 입시 경쟁

SKY 캐슬, 일타스캔들, 공부의 신 등 우리나라에는 입시 경쟁 소재를 다룬 영상물이 유독 많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문화가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한국의 입시경쟁은 정말 치열하다.

한국의 과열된 입시경쟁은 이미 많은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온라인 튜터링 시장 규모는 약 43억 달러(한화 약 5조 9천억원)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대한민국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천억원으로, 미국의 약 5배에 해당했다. 학교에서 받는 교육만으로 명문대 진학 등 입시를 준비하기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주가 학습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충분히 고민하고 취미를 가꾸고 즐길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자료는 입시 경쟁의 과도함이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더욱 뚜렷이 보여준다.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33.5%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 문제(44.3%)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는 한국의 입시 경쟁이 학생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살 생각 여부 : 연도별 추이

과도한 입시 경쟁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3월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에 관한 연설 도중 “청년들의 경쟁과 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며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을 지적했다. 여전히 이름 있는 대학이 좋은 직장과 훌륭한 배우자, 완만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남아있고, 이를 향한 과열된 입시가 청년들의 출산과 양육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위권 대학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발생되는 지역 소멸도 무시할 수 없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학 입시라는 하나님의 좁은 문으로 내몬다”고 표현했다. 과열된 입시 경쟁이 학생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출처: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권리실태: 기초분석보고서

채선희 중앙대 교육학과 객원교수는 한국의 입시와 수능에 대해 비판하며 “공부는 더 이상 ‘앎의 기쁨’이 아니라 ‘상향 이동수단’이 됐고 배움의 목적은 ‘무엇을 알고 싶은가’가 아니라 ‘어디에 볼을 수 있는가’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지금의 대한민국 입시가 학생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어린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아넣는 입시에서 벗어나 더 나은 교육이 형성되어 ‘앎의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홍예서 기자

화성시청소년놀터

솜사탕 병점2점으로 놀러 오세요!

2025년 6월 11일, 화성특례시는 병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머무르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화성시청소년놀터 솜사탕 병점2점(이하 솜사탕 병점2점)’을 개소했다. 이는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진안점에서 청소년 유동 인구와 인근 학교가 많은 병점2동으로 이전해 온 것이다.

솜사탕 병점2점은 다양한 여가·휴식 활동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 청소년 특화 문화공간이다. 내부에는 포근한 라운지 존을 비롯해 닌텐도 존, 과제나 게임,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컴퓨터 존,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만화부터 일반도서까지 폭넓게 갖춘 서가가 마련돼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전략·파티 게임을 갖춘 보드게임

존도 청소년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곳의 가장 특징적인 공간인 ‘디딤존’에는 이용자가 바닥에 투사된 화면을 밟고 움직이면 그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체감형 운동·놀이 기기인 디딤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리듬 게임부터 미니 스포츠, 협동형 미션 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봄으로 경험할 수 있다. 단순한 놀이를 넘어 활동량을 높이는 운동 기능까지 갖춰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신체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시설 외에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놀토데이, 상시 토요체험프로그램, 휴식이 필요해 청놀, 5컷 등이 있다. 특히 근

처 초등학교, 도서관 등과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청소년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무비데이’가 운영돼 일상 속 작은 문화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화성시청소년놀터 솜사탕 병점2점은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들러 쉬고, 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까운 병점2동에 위치한 솜사탕 병점2점에서 친구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연우 기자



화성시청소년놀터 솜사탕 병점2점 이용 안내									
입장 대상 만 9세(초3) ~ 24세					운영 시간 화~금(12:00~21:00) / 토~일(09:00~18:00)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이용 시간 1회 입장 시 최대 2시간 이용 가능, 평일(화~금) 재입장 가능, 주말(토~일/공휴일) 재입장 불가					자유공간 이용 규칙 PC존(하루 40분), 멀티룸(하루 1회, 1인 30분 이내 / 2인 이상 이용 시 60분), 디딤존(1인 30분 이내), 북카페·놀이터·스터디룸 등(하루 2시간 내 이용)				
주의 사항 욕설·비속어 사용 및 폭력 행위 금지. 사용한 모든 물품은 정리정돈 후 원위치. 타 청소년 간 상호 존중 필수. 이용 정원 초과 시 입장 제한(40명)					연락처 031-267-2553/2554. 경기 화성시 효행로 1076-8 한마음프라자 2층				

화성시 청소년기자단

그린나래 그 3년의 여정

작은 펜 끝에서 일어난 변화



화성시 청소년기자단 '그린나래'는 화성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자치기구로서 2009년 처음 그 활동의 문을 열었다. 기자단 활동은 매년 새롭게 모인 인원들의 참여 속에 끊이지 않고 전개되고 있다. 기자단이 발간하는 신문 '그린나래' 또한 올해도 어김없이 제작되어 어느덧 33호를 출간하게 되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3년을 기자단과 함께 보냈다. 누군가는 '시간낭비다', '그만할 때 되지 않았느냐'라며 질책이 담긴 말을 하기도 했지만, 기자단으로 함께 한 모든 시간은 내 청소년기의 가장 뜻깊은 경험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린나래'에서 만난 단원들은 호기심, 자기 계발, 진로 등 모두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모였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기록하는 힘을 길러왔다. 이제는 나의 기자단 활동을 마무리 하며 길었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았을 그 여정을 되돌아 보고자 한다.

2023년 처음 만났던 기자단은 어딘가 딱딱하고 삭막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코로나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시기, 모든 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큰 매력을 느끼

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기자단 활동을 이어 나갔던 것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쓴 글이 신문이 되어 지역에 퍼져나가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2023년 아쉬웠던 부분들을 개선점으로 삼았고, 이는 24년의 활동을 이어갈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2024년부터는 기자단에서 단장을 맡게 되었다. 2년 차인 만큼 아는 얼굴도 늘었고 기자단 활동의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전년도 활동을 교훈 삼아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이때가 나에게는 가장 큰 성장의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심리적인 여유가 생긴 만큼 나의 글에 관한 생각을 하는데 더욱 시간을 쓰며 글쓰기 실력이 꽤 향상되었다. 또, 단장으로서 리더십을 펼치고 정책 간담회와 포럼, 행사장 등을 다니며 세상을 보는 시선을 더욱 넓힐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성장은 잠깐 빛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올해 기자단은 베테랑들이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실하고 활동에 열의를 보이는 단원들의 모습에 뎅달아 힘이 났다. 그 덕에 기자단 모임이 기다려지고 함께

만들어갈 활동들에 대한 기대가 커다. 단순히 기사를 쓰고 신문을 제작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고 연합 워크숍, 견학 등의 활동에도 열의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는 모두 덕분에 후회 없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화성시 청소년기자단 '그린나래'의 청소년 기자들은 관심 있는 분야의 사회적 이슈들을 찾아 각자의 기사를 써내려간다. 기자단 활동은 신문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의 성장을 돋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전히 기자단의 활동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린나래'로서 모여 글로 세상을 표현하고 스스로 생각과 의견을 넓히고 있다. 매해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이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이제 펜을 내려놓지만, 이를 이어받을 새로운 단원들의 펜 끝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강설화 기자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선생님의 한마디



송우진 청소년지도사

화성시청소년기자단은 펜 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고민과 도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응원은 어느 기사보다 값진 기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길을 걷든, 이곳에서 쌓은 경험과 시선이 든든한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단원들 역시 '그린나래'만의 진심 어린 글쓰기를 이어가며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갈 응원합니다!



김은미 강사

그린나래 28호부터 함께 해오면서 다양한 주제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담아내는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린나래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기록하는 힘'을 키워낸 강설화 기자의 더 멋진 비상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보석 같은 시간들이 빛어낸 그린나래에도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세요 :)

화성시청소년수련관

2026 청소년참여자치기구 대모집

활동기간 : 2026. 2. ~ 12.(연간 활동)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의 대표 자치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Youth Rising"

청소년시설을 대표하는 청소년위원

[13(중1)~24세 20명]

#내가 직접 바꾸는 수련관! #시설 모니터링, 기획 부스 운영



청소년자원봉사단 "초야"

청소년시설을 대표하는 청소년위원

[13(중1)~18세(고3) 20명]

#청소년수련관 근본 자치기구 #직접 기획하는 즐거운 봉사



청소년동아리

화성시 대표 재능러들!

[13(중1)~18세(고3)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10팀 내외]]

#댄스, 밴드, 힙합, 미술, 과학, 보드게임 등

#다양한 공연기회, 동아리지원, 연습실 대관



청소년미디어단 "MY"

청소년미디어 활동은 바로 우리!

[13(중1)~18세(고3) 15명]

#전문 미디어 교육 #영상제작 활동 #릴스, 솟폼



청소년기자단 "그린나래"

화성시 청소년 이슈! 내가 알려줄게!

[13(중1)~18세(고3) 20명]

#전문교육을 통한 기사 작성&첨삭 #생생한 취재활동

#내가 직접 쓴 기사로 신문 발행



청소년참여예산기획단

우리를 위한 예산, 우리가 기획하고 사용하자!

[13(중1)~18세(고3) 15명]

#하고 싶은거 우리가 만들자 #청소년주도프로젝트

#예산을 우리가 직접



활동혜택

- ① 모든 활동 활동비(식비, 간식비 등) 지원
- ② 활동성격에 따른 봉사시간 지급
- ③ 연말 모범청소년(화성시장), 우수활동청소년(화성시의회의장) 표창
- ④ 6개 자치기구 중 택 1하여 지원 가능



신청QR



청소년
기자단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미디어단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자원봉사단



청소년참여
예산기획단

문의 |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 031-267-8851~9

그린나래 33호

◎ 발행기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시청소년수련관

◎ 발행인 이승희 관장

◎ 지 도 송우진, 김은미

◎ 발행일 2026년 1월 12일

화성시청소년기자단 17기

강설화(안화고 3), 정이수(안화고 3), 최정원(청계중 3)

이호준(안화중 3), 김지효(치동중 3), 김연우(병점중 3)

김민정(기산중 2), 장유준(청계중 2), 김우솔(안용중 2)

육서진(한백중 2), 하예진(와우중 1), 황인준(진안중 1)

강경서(병점중 1), 강선우(화성신동중 1), 이서윤(다원중 1)

안정미(동탄목동중 1), 신지유(동탄목동중 1), 홍예서(동탄목동중 1)

화성시청소년수련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

유엔아이센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https://unicenter.hswf.or.kr/>